

특별기고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고정하게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는 아이와 어찌할 줄 모르는 부모, 아이와 부모와의 끊임없는 실랑이로 미국 속으로 빠져드는 현실 가정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리고 잠시 뒤 부모도 알지 못했던 아이의 깊은 상처, 양육자 자신의 상처와 문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시선에 포착된다.

부모의 권리와 즐거움

양육자와 자녀의 어긋남의 역사는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와 사랑에 대한 갈구가 빚어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와 성찰 즉 아이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기와 부모의 자기 자신 들여다보기 과정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눈에도 눈물이 맺히며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성찰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수많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며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는 준비 없는 실전이 되어버렸다.

비단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 그리고 세대가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 즐거움 권리 또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로 느끼기보다는 돌보아야 하는 의무에서 나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병약한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 역시 함께하

친밀한 관계와 중독적 관계

고 싶은 권리라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부담들, 특히 여성에게 부과된 아이 돌봄의 책임감과 주로 딸들에게 부과되는 부모 돌봄의 부담감의 문제를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확산으로 바뀌어나가 한다는 대전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담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와 즐거움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제넷 핀치(Janet Finch)의 어머니와 딸에 관한 한 연구에서 어떤 응답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머니와 나는 같이 살기로 선택해서, 함께 살았지요.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요. 우리는 공동의 가정을 공유했고, 함께 웃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산 거지 내가 어머니를 보살피드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아가 건강한 독립적인 성인들의 결합은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위 이야기에서 딸도 독립적이었고 어머니도 독립적인 사람이다.

성인과 어린이의 상호작용에는 분명 뚜렷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특히 어린이가 아주 어릴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는 또는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의 시작일 것 같다. 어린이는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며, 자아는 개인적 경계가 있다. 아주 쉽게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어린 자녀의 자아 경계, 몸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선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껏 그 부모가 어릴 때 받아왔던 대로, 그렇게 형성된 인격으로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선다.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말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앤소니 기든스 교수는 그의 저서 ‘현대사회의 성, 사랑, 예로티시즘’에서 관계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친밀한 관계와 중독적 관계성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중독적 유대란 존재론적으로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정의(define)해주는 다른 한 사람 또는 일련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헌신하지 않고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을 갖지 못하며, 한 개인이 어떤 종류의 강박성에 지배되는 행동을 하는 파트너에게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중독적 유대는 건강한 친밀성의 전제조건인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을 막고 불평등주의적인 의존과 관행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로 묶여 서로를 압박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란 각 개인의 자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기의 욕구를 위해 타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다. 권력의 불균형이 아니라 관계 내에서 균형과 상호성을 보장한다. 어린이와 성인의 관계이지만 충분히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며 솔직하게 말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갖는 개인성을 포용하면서 항상 변화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상대방의 문제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초연함이 필요하다.

‘정중한 존중’ 건강한 관계

물론 기든스는 성인 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유지되는 친밀한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까지도 말이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돌봄과 그 개인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정중한 존중’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에서 무수한 이야기와 행동을 하면서 어떤 모양의 관계를 맺어간다. 이 관계의 코드만 바뀌어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가 부담이 아닌 함께하고자 하는 권리로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세대에 걸친 관계 형성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

전남도, 농업데이터 체계적 관리해야

득 증대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는 농가가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추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산 기술과 농업경영의 방법 및 토지 소유 등 농업생산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저술한 ‘농서’의 편찬과 보급이 활발해졌다. 조선 태종대 ‘농서집요’부터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다양한 농서가 보급됐다.

농서의 보급으로 기술, 경영방식 등 농가가 이용 가능한 농업정보가 크게 늘어났고, 조선 말기 문호개방 이후 외국의 농산물, 품종과 농업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농가의 정보량 증가는 농업경영의 효율화로 이어져, 농업생산액과 농가 소득 증가로 귀결됐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수입 확대와 신성장 산업의 대두로 농업의 성장세가 둔화했으나,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 유지, 생태계 보전 등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토지, 자본과 같은 농업자원을 잘 활용해 수확량 증대와 품질향상, 비용 절감, 판매가격 향상이라는 농업경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답은 농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작물의 재배적지, 생육 환경부터 시기와 판매처에 따른 농산물 가격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야 농장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은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구축에 힘쓰는 정도로 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농

가 단위의 경영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농가가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투입된 비용, 소득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작물, 품종을 재배하는지, 판매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가 경영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농기원은 올해부터 ‘전남 농업생산자패널 조사·분석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현재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매년 농가의 자신헌황, 기술활용수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소득 향상방안, 농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평가가 우수한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농업연구와 농촌지도사업 담당자에게 현장 수요도가 높은 기술,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전남농정’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다른 데이터 조사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매년 동일한 농가를 조사하는 ‘농업생산자패널 조사’ 사업이란 점이다. 패널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농업 시대를 맞이한 이 때 전남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기후변화, 불안한 국제 경제 등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려면 발전된 농업데이터 수집, 분석체계를 마련해 농업인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선진국이 농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도 또한 농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시작은 농업생산자패널 시스템 구축이다. 농업생산자패널 구축은 전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7위에서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고



김민현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디지털농업”. 최근 농업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오늘날 기술은 어떻게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결합,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디지털농업은 곧 데이터 활용도를 향상하는 새 기술을 확산해 농식품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식량 증산, 농산물 시장 개방, 스마트농업을 거쳐 디지털농업 확산이 한국 농업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농업 트렌드가 꾸준히 변화하는 중에도 ‘농업경영’은 항상 농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우리나라 농업은 신석기 시대 중반 한반도에 농경문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철기 시대를 거쳐 3세기 경까지 대규모 인력에 의존한 집단농업의 형태를 보였다. 4-5세기 인력 대신 소를 농업에 투입하는 ‘우경’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에서 본격적인 농가 단위의 농업경영이 자리잡았다. 즉, 이 시기부터 농가는 농산물 생산성의 향상, 투입비용의 최소화, 농업소

시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사실이지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을 놓고 민선 7기와 8기가 부딪히고 있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민선 8기 쪽은 7기에서 개통 지연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고, 7기 쪽은 지연으로 인한 별도 중항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개통 지연을 그동안 안 알렸으니 숨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7기 쪽에서는 지연 사실만 알리면 시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방안을 강구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지난달 29일 퇴임한 이 전 시장은 페이스 북에 올린 긴 글을 통해 2호선 개통 지연 사실을 숨겼다는 민선 8기 인수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민선 6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공기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업비 총액 증가와 현장 장애 요인 발생 등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전문적인 검토 후에 가능한 개통 시기를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선 8기 인수위는 공교롭게도 이전 시장의 퇴임 당일 2호선 1, 2단계 개통이 3~5년 늦어지고 3단계 개통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2023년 1단계 개통은 어려워졌지만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빨리 진행되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상반기 중 개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개통 시기를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3단계 사업비도 추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화할 계획이었으며 추진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와 8기 입장 중 어느 쪽이 옳은가. 이에 대한 답은 시민들이 내려야 할 것 같다. 어쨌든 개통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던 시민들은 이번 이 전 시장의 해명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개통 지연에 대한 이유와 타개 노력 시한 등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개통 지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추진해가길 바란다.

허준이 필즈상 기초학문 발전 계기 되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교육원 수석부 석학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수학자로서는 최초 수상이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석사과정까지 마친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의미를 둘 만하다.

필즈상은 1936년 제정됐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 나이 제한 때문에 39세인 허 교수에게는 올해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에 맞춰 수여된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뒤 초등학교부터 대학 학부와 석사과정까지 한국에서 마쳤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물리천문학부 학사, 같은 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학위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받았다. 허 교수는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난 이후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등 오랜 수학 난제들을 증

명했다. 리드 추측은 1968년 제기된 수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같은 연구업적으로 사이먼스 연구자상, 삼성 호암상, 뉴호라이즌상, 블라바트닉 젊은과학자상도 받았다.

허 교수가 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부터다. 학부 시절 필즈상 수상자 히로나카·헤이스케 교수를 만나 강의와 수학적 영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수학은 기초학문이다. 기초학문이란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으로 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일컫는다. 기초학문은 당장 쓸모없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발전과 취업에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부터 관련 학과가 줄어든 상태.

철학, 수학, 과학 등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문의 틀이 단단해야 최첨단 분야에서의 응용학문도 발전한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이 기초학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해자의 눈물 마르지 않았다

기지사첩



이나라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은 상도 받고 단체의 간부를 맡는 등 광주 연극계에서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서 광주연극협회는 지난 4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여성 극단원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극단 대표 등 회원 3명을 제명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이들은 이제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연극협회를 포함해 전국 지회의 회원으로도 가입을 금지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들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협회에서 제명됐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미 광주 연극계에 뿌리내렸기에 권력은 잔존할 것이다. 단순히 협회 회원에서 제명됐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니 오히려 피해사실을 밝힌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신고했고 이제 경찰 수사가 남았다. 하지만 피해조사를 받는 과정도 우려스럽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성폭력 증거와 진술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은 흉터로 남을까 하는 우려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억해야 한다. 아직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